

(자료제공) 201 . . .() /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 월 일 이후)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과 장	성중경	2286-5371
	팀 장	권영학	2286-5386
토지관리과 토지평가팀	주무관	박선정	2286-5387

사진 있음

사진 없음

총 매수

2쪽

성동구,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실시

▶ 관내 총906필지 표준지공시지가 내년 2월 23일 결정·공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구 담당 감정평가사와 구 자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표준지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고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보상 및 국·공유지 처분과 같은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합동조사는 11월 16일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진행되며, 관내 총 906필지 표준지에 대해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상황,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인근 자치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23일 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담당 토지관리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시·군·구 토지관리 부서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합동조사반장(토지관리과장 성중경)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7)로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